함께하는 의정, 살기좋은 단양!

# 의 정 소 식

단양군의회

# 들 풀

류 시 화

들풀처럼 살라
마음 가득 바람이 부는
무한 허공의 세상
맨 몸으로 눕고
맨 몸으로 일어서라
함께 있되 홀로 존재하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고
오직 현재에 머물라
언제나 빈 마음으로 남으라

슬픔은 슬픔대로 오게 하고
기쁨은 기쁨대로 가게 하라
그리고는 침묵하라
다만 무언의 언어로
노래부르라

언제나 들풀처럼
무소유한 영혼으로 남으라

함께하는 의정, 살기좋은 단양

# 의 정 소 식

## 목 차

- 의회개원 1주년 기념사 / 4
- 단양군의회 1년 성과 / 5
- 2007하반기 의정활동 방향 / 7
- 의정 모니터요원에게 듣는다. / 11
- 의원논단 / 13
- 우리고장 문화 탐험 / 15
- 군정질문 · 답변 / 16
-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 19
- Close-up (환경특위) / 23
- 생활정보 / 24
- 의정활동 현장스케치 / 25

# 제5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4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떠나 계시는 10만 출향군민 여러분!

오늘 제5대 단양군의회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애정에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5.31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하여 출범한 단양군 5대 의회는의정방침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미래를 위해 연구하는 의회』,『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의회』로 정하고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단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일곱 명의 의원이 하나 되어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께서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아지고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간 3차례의 정례회, 7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외에도 집행부의 각종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내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83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열악한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수정발의하여 당초 지방세수입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도내에서 최고액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5개월간 관내 석회석 관련 제조활동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하여『석회석관련 주변지역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원도 영월군.강릉시.삼척시.동해시와 인근 제천시등 6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의 생존권 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부 시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단양지역 상습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확보를 위한 건의문』.『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등 총 4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정모니터제, 의정발전협의회, 의정회 등을 신설하여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년내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자유롭고 신속한 정보교환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생중계하고,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시로 간담회 "민의를 듣는다"를 개최하여 열린 의정, 참여 의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가지 노력들이 군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욕구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인인 군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크는 나무입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함께 동참하시고 고견을 주시어 의회가 모두가 함께 만드는 살기좋고 행복한 단양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복자 나폴레옹은 "지도자는 희망을 나누어 주는 중개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의회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작은 일부터 하나 하나 챙기면서 성급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감으로써 4만 군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는 중개인이 되겠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7. 7

**단양군의회의장 엄 재 창**

Focus

# 단양군의회 1년 성과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5대 단양군의회가 2006년 7월 7일 개원식을 갖고 출범한지 1년이 흘렀다.

그동안 단양군의회는 엄재창 의장을 중심으로 의정방침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위해 연구하는 의회』,『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의회』로 정하고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단양』이라는 슬로건으로 7명중 5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특성을 잘 반영하여 젊고 활기 넘치며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하였다.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적극 추진**

제5대 의회 1년을 결산해보면 우선 3차례의 정례회, 7차례의 임시회 등 총 10차례의 회기를 운영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3차례의 정례회에서는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각종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두차례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총 444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여 9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주의토록 하 는 등 견제와 감시를 통한 집행기관의 능률적인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였다.

아울러 기간동안 운영된 특별위원회 결과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입법부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총 5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83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장수수당 지급조례』를 발의, 제정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열악한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수정 발의하여 지원비율을 당초 지방세수입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도내에서 최고액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 제·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2007년 당초예산 및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자치단체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와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지를 직접 방문,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2회 개최 하여 총 356개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문제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44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점검하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여 해결하는 등 주민편의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와 함께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6. 11. 6)에서는 석회석 관련 제조활동에 따른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하여『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

# Focus 단양군의회 1년 성과

원도 영월군.강릉시.삼척시.동해시와 인근 제천시 등 6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의 생존권 보호에 주력하였다

또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역현안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 부시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단양지역 상습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확보를 위한 건의문』.『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등** 총 4건의 건의·건의문을 채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군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하는데 활발한 의정을 폈다.

제5대 의회에서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주민과 함께 가까이서 호흡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역할을 위해 2007년 1월부터는 의원이 상주하는 요일별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정모니터제**를 신설하여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정발전위원회 및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연구하고 노력하여 한단계 발전된 의원상을 정립하였다.

이제 1년을 맞이하는 제5대 의회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도 의정활동의 최대목표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두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존 F. 케네디 John F. Kennedy)[미국 대통령, 1917-1963]

##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열린의정 펼쳐..

엄재창 의장

제5대 의회가 큰 포부를 갖고 야심차게 발을 내디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7명의 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왔으나 다소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석회석관련 환경환경피해조사특위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예산 등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토양 및 대기오염 조사등 주민이 바라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역주민과 기업체가 공생공존하기 위해서는 주민 · 시멘트회사 · 의회 · 집행부가 참여하는 시멘트공장 환경오염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양 및 대기,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지역간균형 발전을 위한 대군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정, 참여의정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인인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행정과정이며,지방의회는 군민의 애정과 관심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때론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야 잘 자랍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단양 건설에 군민 여러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 정 활 동

## 작은 것에도 귀 기울이는 참 일꾼으로 노력할터..

오영탁 부의장

우리 모두가 아끼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단양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희망찬 단양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참일꾼으로 열정을 받쳐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어느덧 제5대 의회가 출범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의원으로써 역할에 더욱 충실하지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1년이라는 의정활동 속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너무도 많지만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과 합리적인 사고로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항상 연구하는 의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더욱 왕성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의원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의회 ·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단양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단양 만들기에 총력

장영갑 의원

제5대 의회가 새로운 의욕으로 지난해 7월 7일 개원식을 갖고 야심차게 출발한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선으로서 패기와 열정으로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5대 의회는 의원 유급제 실시 등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요일별 민원상담제 실시와 의정모니터제 도입 등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는 의원으로서 출마를 결심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단양군민의 입과 귀가 되어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하여는 군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으며, 비판에 앞서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양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의정활동에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단양군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 정 활 동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의회상 정립

신태의 의원

제5대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양군 의회 출범과 동시 연개소문 셋트장을 비롯한 군민 현안문제인 소규모댐, 석회석 환경관련 특별조사의원회, 현대시멘트 사택 등 많은 현안문제를 군의회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아쉬웠던 점도 많았습니다.

군의회 의원 7명 모두는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스스로의 주인의식에 의하여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방자치야말로 참 다운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향후 저희 의원들은 공정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의회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추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써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집행부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면서 대안 해결 방안 모색 의회

윤수경 의원

단양지역에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격년 주기로 수해 피해를 입었다. 그 중 소백산과 백두대간 주변 마을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 2006년에는 734억원의 수해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재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 정립에 의회에서도 함께 참여할 것이다. 2007년 하반기에는 수해지역 주민들이 그간의 불편을 벗어버리고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하며 영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종 사업은 완벽한 시공이 되었는가를 현장위주로 주민불편사항을 제보 받아 부실공사가 우리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의 민원은 주민이 함께 참여, 다수인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며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 집행부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 정 활 동

## 작은 일부터 한계단씩 발전하는 의정 추진

김영주 의원

군민여러분이 바라는 지방자치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지난 7월 열정과 의욕을 갖고 의정을 추진한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어느새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 나름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농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비롯한 한미 FTA 대응 방안,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인 단양 수중보 건설, 공유재산 광업용 임대, 환경피해 특별위원회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군민을 위한 힘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충만하지 못하고 미흡한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하는 말처럼 의욕과 같이 모든일이 해결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거시적인 성과도 좋겠지만 모든 일은 한 계단씩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작은 일부터 한걸음 한걸음씩 다져나가는 일꾼이 되도록 1년 전 의욕에 넘치던 그 열정 잃지 않고 그때 그 생각과 각오로 흔들림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단양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프라 구축에 최선

양수자 의원

벌써 4년의 임기 중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은 단양군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단양군의회 의정활동의 발전과 변화의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접목하려 노력하였으나, 석회석 관련 환경특위 활동과 수중보 설치 등 지역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또한 한미 FTA 협상과 한 · 중과의 협상은 우리 농업의 재앙이 될 수 있어 생존 전략을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 농산물 연합마케팅 추진 성공사례(나주시)와 억대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사례(함안군) 등을 견학하여 집행부에 제안 하였으며, 단양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철저로 쓰레기 배출비용(년간21억원) 절약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총괄책임자로 책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 13명 총15명의 연구원들이 “단양마늘 GAP연구팀”을 구성하여 단양마늘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할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도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은 엄청난 변화의 시기가 도래될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정직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사랑과 봉사라는 덕목을 갖추어 진정한 군민들이 원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

## 모든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기대하며

매포읍 풍상섭

매포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는 의정모니터 요원 풍상섭 씨는“단양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지역의 여건이 열악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외지 사람들에게 사는 곳이 단양이라고하면 “좋은데 사시네요”하고 부러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직장문제로 인한 인구감소는 단양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러한 지역여건에 대해 풍상섭씨는 젊은 가족들이 고향을 지키고 살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군과 의회에 요구하였으며, 단양지역에 맞는 농작물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위해서는 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 자원화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최근에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단양은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소백산 줄기 계곡에서는 많은 물이 사계절 흐르고 청정한 공기와 푸른 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천연자원이므로 단양하면 맑은 물, 그리고 푸근한 시골정취가 떠오를 수 있도록 자연을 보존한 개발을 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도록 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의 정 모 니 터

## 의회의원이 없는 면지역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곡면 한복녀

가곡면에서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모니터요원 한복녀씨는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실시된 선거에서 가곡면에서 의원이 선출되지 못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면에서 각종 회의를 실시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의원이 없어서 회의에서 채택된 주민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또한 예산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비등이 차별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한복녀씨는“이런 문제는 비단 가곡면 뿐만 아니라 의원이 없는 단성, 대강, 적성 주민들이 다같이 느끼는 부분으로 의원이 없는 지역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구석구석 신경을 써 주신다면 주민들은 더욱 고마워 할 것이며, 가곡은 면민들이 다 모여서 체육대회나 행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나대지를 활용한 시설을 설치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가계소득 향상을 위한 농촌여성 지원 프로그램이나 사업등을 개발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에 해변이나 해외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청정한 공기, 맑은 물을 간직하고 있는 단양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계곡 물에 발도 담그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감상해 보는 웰빙 휴가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보조사업 시행을

적성면 박완수

적성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의정모니터 박완수 씨는 그동안 군에서 마늘 건가시설 보조라든가 마늘 주아재배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업 보조사업이나 농림사업 심의 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심의를 하는 관계로 어떤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유감이라 했다.

박완수 씨는 "고추방재용 농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이 아닌 편성된 예산에 맞추거나 농약회사에 유리한 약품을 선정하여 배부하여 농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으며 군의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숙원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매포지역의 공해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도 공해보상지역이나 수몰지역에서는 농사를 짓고 않도록 하고 수자원 공사와 군이 협의하여 메밀꽃이나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의 정 모 니 터

## 단성면 생활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조명등 설치를

단성면 이명화

단성면 생활체육공원 풋살경기장은 시설을 잘 해 놓아서 면민들 뿐 아니라 인근에 풍기, 영주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즐기면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보기도 좋고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주로 캄캄한 밤에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많은 청소년이 겨우 축구공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른들이 저렇게 캄캄한 곳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었을 테지만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그냥 조명 없이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설물을 설치해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도 많은데 단성면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풋살 경기장에 조금의 예산을 추가해서 청소년들이 야간에도 마음 놓고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양지역에 각종 운동장에는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만 미 모든 것들이 어른들을 위한 것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라 건의를 드립니다. 청소년 문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양군의회 인터넷 모니터 의견접수)

# “글로벌 시대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엄재창 의장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도 어느덧 16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인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선출방식이 소선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의 전환과 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채택 및 의원유급제의 도입,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주민소환제등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시행초기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에 의하여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지방자치 본래 취지에서 보면 그 원인은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주민 모두에게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에 주력하기보다 다음선거를 위한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드는데 주력하여 왔으며, 지방의회의원들은 상당수가 전문성이나 행정경험이 부족함에도 연구하고 연찬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 또한 자신들의 권한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위임만 해놓고 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정체현상은 시민단체(N.G.O)의 감시 기능이 활발한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미미한 중.소도시에서 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하겠다.

정체된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변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자치단체는 조직의 활성화와 더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개발, 군민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사기업에 버금가는 경영마인드로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방의회 또한 스스로의 자질과 능력 배양은 물론, 주민곁으로 다가가는 생활의정을 통하여 주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며, 주민 또한 군과 의회를 모두 감시하는 감시자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정 및 의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감시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군 · 의회 · 지역주민의 3요소가 상호 보완적이며, 각자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는 명실상부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선진의식 그리고 의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실질적인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그 지역은 분명히 미래의 발전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민선 4기 우리군의 군정목표가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이듯이 모두가 행복한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세상에는 세월이 지나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변화해야 할 때이다. 변화된 마음가짐과 의지를 가지고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 글로벌 시대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언제나 초심으로 연구하는 의회를 위해」

윤수경 의원

의회의 의정활동은 하면 할수록 일도 많아지고 욕구도 커진다.

처음 의회가 태동할 때는 집행부는 관선 군수였고 의회는 민선이었다.

초대의회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 군민의 뜻대로 집행부에서 많이 수용하였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1기가 차이 나는 것도 문제였지만 제반 법규는 15년 전의 그대로가 더 큰 문제이다.

우선 의회에 가장 강력한 현안이 아주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500여명의 공직자가 365일간 일한 것을 7명의 의원이 7일동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정책상, 제도상의 큰 문제이다.

또한 예산의결권 역시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5일간에 심의 검토해야하는 의회에 모순투성이로 군정질문 답변에 확실하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최상의 답변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이다.

정당공천제에 의한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한 지방자치 현재 정당에서 얼마나 책임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하여도 곰곰이 생각할 때이다.

기초의회에서는 지역간의 의견을 토론하고 주민의 의견을 기탄없이 반영하여야 하는데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 인구는 적고 주민의 욕구는 크고 예산은 적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데도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상위권에 진입하려면 공무원과 전 군민이 노력하고, 작지만 강한 군이 되자면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참여하는 의식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것은 군민과 함께 모든 권한을 추진하는 것이 의회의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된다.

추진과정에서 꼭 나만이라야 된다는 아집은 이젠 버릴 때도 된 것 같다. 또 공무원은 전화 서류로 확인 후 법규를 대입시키면 기준이 형성되지만 의원의 민원은 법규와 절차 등을 모두 무시당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이 의원 민원의 현주소이다.

현재 의회시스템에서 법규와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 회기 기간에만 한정되어 있고 모든 것은 다시 위탁 협조받아 민원인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의회에 유급제를 실시한 후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고"봉급 받고 그것도 해결 못하나" 하는 비판도 있고, 중선거구제 또한 모순투성이다. 집행부에 강력히 대응코자 하나 인력,제도, 서류작성, 정보의 확실성,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의원 본연의 임무인 조례 제정, 즉 입법의 취지에는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인데 의회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군민의 기대에 현재까지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된다.

5대 의회는 모든 의원들이 출마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는 동료의원들의 활기찬 의정활동 모습을 한층 기대해 본다.

# 단양신라적성비

##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3－1

국보 제198호로 1979년 5월 22일 지정되었다. 단성면 하방리 산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 진흥왕시대의 비(碑)다.

성재산 적성산성 내에 위치한 신라시대의 비로,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인 이곳 적성을 점령한 후에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워 놓은 것이다. 1978년에 30㎝ 정도가 땅속에 묻힌 채로 발견되었는데, 비면이 깨끗하고 글자가 뚜렷하다.

비는 위가 넓고 두꺼우며, 아래가 좁고 얇다.

윗부분은 잘려 나가고 없지만 양 측면이 거의 원형으로 남아있고 자연석을 이용한 듯 모양이 자유롭다.

전체의 글자수는 440자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글자는 288자로 거의 판독할 수 있다. 글씨는 각 행마다 가로줄과 세로줄을 잘 맞추고 있으며, 예서(隸書)에서 해서(楷書)로 옮겨가는 과정의 율동적인 필법을 보여주고 있어 서예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비문에는 신라의 영토 확장을 돕고 충성을 바친 적성인의 공훈을 표창함과 동시에 장차 신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포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신라의 형벌 및 행정에 대한 법규인 율령제도 발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노역체제, 재산분배에 관한 국법이 진흥왕 초반에 마련된 것과 적성지방에 국한된 관습을 법으로 일반화하고 있는 사실 등이 그러하다.

비문 첫머리에 언급된 10인의 고관의 관등과 『삼국사기』의 내용을 견주어 살펴 볼 때 비의 건립은 진흥왕 6~11년(545~550)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북방공략의 전략적 요충지인 적성지역에 이 비를 세웠다는 것은 새 영토에 대한 확인과 함께 새로 복속된 고구려인들을 흡수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비록 순수비(巡狩碑:왕이 직접 순행하며 민정을 살핀 기념으로 세우는 비)는 아니지만 순수비의 정신을 담고 있는 척경비(拓境碑:영토 편입을 기념하여 세운 비)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 Q&A 군정질문, 답변

오영탁 부의장

## 소규모댐(수중보)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

Q : 단양군 최대 현안사업인 소규모댐의 합리적이고 차질없는 추진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축복속에 진행되어야 할 소규모댐이 위치와 관련하여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주민화합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김동성 군수** -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군민들이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중대한 일임으로 군민 대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 둘이 아니라 외중방 지점으로 하는 하나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댐의 위치를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중방으로 옮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며, 이렇게만 된다면 주민화합이 안될 이유가 없다고 보며, 그동안 학자들과 건설기술자 용역팀과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중방으로 옮겨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금년에는 15억원 가지고 물막이 공사밖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과 함께 또 댐 추진위원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제는 단성주민들도 함께 가세를 해서 댐의 위치를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 연개소문 세트장 요금징수 및 향후 관리운영 방안

Q : 연개소문 세트장의 입장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많으며, 방문한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체계를 주차요금, 온달관광지 이용료로 이원화하고, 매표소도 관광지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드라마 종영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김동성 군수** : 주차료와 입장료를 분리할 경우 다소 비싸다는 인식이 들어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온달관광지 입장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관광지내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개소문 세트장 부근으로 이전 설치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드라마 종영 후 촬영 시 사용되었던 의상, 무기, 소품 3만여점을 이용한 전시관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 방송사, 영상산업 및 연예기획사를 통하여 드라마 , 영화, CF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현재도 2-3건의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관내 예술 공연단체와 연계한 주말공연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온달관정비와 동굴전시관 건립 등 온달관광지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Q&A 군정질문, 답변

김영주 의원

## 마늘가공공장 및 단고을 유통주식회사 법인 설립 추진계획

Q : 당초 우덕리에 설립예정이던 마늘가공공장이 평동리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이유와 우덕리에 매입한 땅은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단고을 유통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김희수 농림과장** : 시멘트회사에서 공해피해 지역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고 주차공간 부족과 고속도로에서 접근성 불편 등 유통 센터로의 기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농민단체에서도 건의되어 매포읍 평동리로 사업장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농산물을 집하 유통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게 되어 5,000평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토지는 석회석 신소재 연구단에서 시험 생산동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단고을 유통센터주식회사는 당초 단양군농산물연합마케팅전담 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추진 회의를 거쳐 법인의 명칭을 "농업회사법인 단고을유통주식회사"로 하기로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 사항이며, 향후 농산물 가공,유통센터의 운영주체 확립 및 전담법인화 타당성 검토, 공통마케팅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성 등을 농협군지부와 단양군이 용역비를 공동투자하여 전문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태의 의원

## 시멘트공장 각종 폐기물 소각 관련 대책

Q :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군수님께서는 특위가 조사한 시멘트사 폐기물 사용 및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종합적인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 할 용의가 있으신지?

**김동성 군수** : 시멘트사 소성로 폐기물 소각과 관련하여 대기배출 기준 강화 및 다이옥신 규제는 물론, 사용가능 한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 하고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의 일련의 법 개정과 제도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차원에서도 시멘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집단민원 대책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대책과 환경부에 건의하여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대책과 관련법 개정을 위한 환경부를 방문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주변지역의 대기 및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무엇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멘트사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 및 토양 오염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으며 현행법 범위 내에서 폐기물의 반입 및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 하겠습니다.

# Q&A 군정질문, 답변

윤수경 의원

## 성신양회 공장증설 사업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대책

Q : 성신양회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단양군민의 요구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제출한 내용을 보면 13가지로써 자원세신설, 시멘트수송 용역의 지방전환, 고용증대 방안, 레져산업전문대 유치, 공사의 지역업체 시공, 공해문제, 자재 현지구매, 단양금융기관 이용 증대, 장학회 운영 기금 등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공증서를 제출한 바 있는바 현재까지 이행실적과 미이행된 부분에 대한 향후 대응대책은?

**표순우 경제활력단장** : 성신양회에서 '96년 4월에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공증서를 제출한 후 '98년 IMF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행이 일부 부진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증이행 추진실적은 단양장학회 10억원 출연과 공장증설 관련 교통유발 해소대책 및 공해방지시설 확충은 완료하였으며, 시멘트 수송용역의 지방전환, 지역주민 고용증대 방안, 자재의 현지구입, 단양지역 금융기관 이용증대 등은 계혹 추진 중에 있으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자원세 신설, 레저산업 추진, 전문대학 유치, 본사이전 문제 등은 성신양회(주)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매우 부진한 상태임. 앞으로 미흡한 사항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증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자 의원

## 한미 FTA체결 협정에 따른 대책

Q : 지난 4월 2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 것에 대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내역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군에는 어떤 분야에 얼마나 피해가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미 FTA로 인해 우리의 농업구조가 개편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예견 되는데 그 방향과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확보와 선진화를 위한 대책은?

**김희수 농림과장** : 농업부분의 세부적인 피해액 산출은 농림부에서 5월중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분야별 피해 예상액은 최대 74억원에서 최소 50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채소 특작분야 10억원, 과수분야 10억원 축산분야 16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수입량 급증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소득보전직불금 지원과 축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양군 인증 전문판매점 육성, 친환경 농가 집중 육성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업구조의 개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유형별 농가 구분을 실시하여 맞춤형 농정시책추진으로 농업구조의 개편에 대비하겠으며, 농업경쟁력 확보와 선진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와 농촌의 체험마을 확대를 통한 소득창출을 유도하는 등 우리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 기관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의 논리에 맞는 군정의 정책을 결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조례)를 심사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총 3회에 걸친 특위 운영으로 총 26건의 조례를 심사, 의결하였다.

심사 의결된 사항을 살펴보면 총 26건 중 1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10건은 수정가결하였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단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년간 예산을 감안하여 보면 군본청 당직근무를 단양군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으로 하여 용역 위탁하거나 청원경찰을 활용한 전담 당직제도로 전향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수정하여 가결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살림살이인 예산의 관리, 집행에 있어서 재원의 배분과 소득의 재분배, 지역경제안정의 기능을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 심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총 2회에 걸쳐 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1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218억 8,107만 8천원이 증액된 2,046억 7,807만 8천원으로 편성된 추경안을 승인하였다. 제167회 정례회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예산소요액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특히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과 누적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중점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추적 발굴하여 끈질기게 징수하겠다는 확고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 징수 대책에 철저를 다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승인하였다.

의원 모두는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절약과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단양군 전체의 발전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질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주민의 공공이익은 물론 복리증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는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2006년 이월사업과 수해복구사업, 2007년도 신규사업 중 1억원 이상 인 주요사업장 115개소에 대한 관련 부서별로 진행상황과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20개소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을 해소하여 추진과정에서의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여 해결하는 등 주민편의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점검결과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은 물론, 사업 착수도 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사업을 용역설계에 의존하고 있음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을 깊이 숙지하여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미 발주된 사업장도 감독공무원이 부족하여 10개 사업장 이상을 담당하는 사례가 있어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실정인 만큼 사업장 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사 시행 시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인근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또한 시공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특위위원 및 감독공무원, 현장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한 현장을 굴착하여 문제점을 지적,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등 특위구성 목적에 부합되는 성실한 특위활동을 펼쳤다.

#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이나 처분 전에 적정성과 효과성을 전문적으로 검토 분석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2차에 걸쳐 15건을 심사하였다. 공유재산특위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재산취득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항,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의 지장초래여부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재점검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제16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는 관광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은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주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군유지에 대한 광업용 대부 11건에 대하여는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번에 한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받아 계약하고 매 3년마다 채광계획 및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 대부 신청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광업용으로 대부되는 점을 감안하여 채광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부기간을 1년 6개월로 승인하였다.

# 환경특위 – 군민의 생존권 보호에 앞장서

단양군 의회에서는 군민의 생존권 보호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6일『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3월 30일까지 145일간 운영하였으며, 특별 위원회의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영월군 의회와 공동으로 대처 하면서 관내 기관장과의 간담회, 주민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환경관련기관 및 선진 폐기물시설 등을 방문하여 토양 및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조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조사결과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대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이 미비한 점을 비롯하여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관련법, 환경오염 측정관리 기준 불합리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어 충청북도 방문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관련법 제·개정을 협의하였으며 시멘트 소성로 대기배출 허용기준의 대폭 강화와 소각시설과 동일한 측정항목 적용을 비롯한 소성로의 모니터링제 의무화, 소성로 주변의 환경영향조사 정기 측정의 법제화, 산업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확보 관련법 규제강화는 물론 시멘트사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발송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토양 및 대기오염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과 폐기물의 유통과정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주민들이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단양군에 건의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오는 동안 보다 시원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점은 실로 아쉬운 점이지만, 환경부에서 환경 관련법 개정의 움직임, 현재 진행 중인 양회협회의 환경관련 영향평가 용역, 인접 6개시군의 환경피해조사 용역 등이 시행중에 있음은 그동안 본 특위에서 이루어낸 큰 성과라 하겠다.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간은 종료 되었지만 환경 관련 제정을 비롯한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영향평가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의회 차원에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본 의회에서는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특위를 구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 알아두면 좋은 건강 정보 사이트

최근 특정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건강정보 사이트가 인기다.

주로 남에게 쉽게 털어놓기 힘든 탈모, 피임, 무종 등의 고민부터 당뇨, 아토피 등의 특정 질환까지 내용이 다양하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다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클릭 한번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 당뇨 · 통증 아토피

당119(www.dang119.com)는 당뇨 교육실과 함께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들이 직접 자신의 혈당수치를 입력해 당뇨를 관리하도록 돕고 있다.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한 정보가 가득한 인어공주 엔느의 통증이야기(www.ezpain.co.kr)는 통증치료에 유익한 음식과 아로마 요법 등 통증에 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토피 전문 사이트 아토피아(www.atopa.co.kr)는 양방, 한방, 자연건강법 등 다양한 아토피 치료방법을 알려준다.

## 탈모 · 무좀

대표적 탈모 전문 사이트 대다모(www.daedamo.com)와 탈모닷컴(talmo.com)은 탈모 치료제 소개부터 가발, 모발 이식은 물론이고 원형탈모동호회, 여성탈모동호회 등 각종 동호회가 활성화돼 있어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있다.

미소커뮤니티(www.dailycomb.com)는 평소 잘못된 모발관리 습관을 바꿔 탈모를 예방하는 모발건강 노하우를 나누는 곳이다.

여름에 특히 인기인 무좀 사이트 풋케어(http://footcare.co.kr)는 발 건강교실과 상담 중계실 코너 등을 통해 무좀 등 각종 발 질환에 대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여성만을 위한 사이트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만든 피임연구회(www.piim.or.kr)는 피임정보 및 임신과 생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유수유클리닉(www.momilk.co.kr)은 모유수유에 관한 체험담, 직장엄마 젖먹이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건강 포털 사이트 닥터우먼(www.drwomen.co.kr) 에서는 임신, 육아와 관련해 산부인과, 비뇨기과, 소아심리 등 다양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의정활동 현장스케치

제168회 의회 임시회

제5대의회 개원1주년 기념

주요사업장 현장특위활동(현장확인)

정우택 충북도지사 수해복구지역 방문

바르게살기 회원들과 간담회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모발검사 결과발표

# 의정활동 현장스케치

충북 시 · 군의원 합동연찬회(제천)

태국 파타야 시청 방문

싱가폴 도시재개발청(URA) 방문

의정모니터 위촉식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

환경특위 주민과의 간담회

# 단양군의회는
# 군민 여러분을 위해 대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습니다.

단양군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소식, 회의록 검색,
참여마당을 통하여 자료 조회 및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여 좋은 글 남겨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단양군의회 안내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dycc.net
- ☞ 전화번호 (043) 420-3504, 3508
- ☞ 팩스번호 (043) 422-9502
- ☞ 우편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번지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 누구나 행복해 하며 꿈꾸고 싶은
# 영원한 고향의 안식처 단양!

이 터의 발전을 위해 우리 의원들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議

**단양군의회**

www.dycc.net